

“폐자원 집중수거운동” 추진계획

환경부는 재활용 업계의 원자재난을 해소하고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달을 “폐자원 집중수거의 달”로 정하여 각 가정은 물론 직장 등에 방치되어 있는 폐자원을 적극 활용한다고 한다. 이에 본지는 환경부의 “폐자원 집중수거 운동”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.

〈편집부〉

1. 추진배경

- ▶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급불균형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 재활용품의물량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- 폐지는 수입펄프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하여 국내 폐지가격도 지난 해동기에 비해 43.1% 상승하면서 품귀현상 초래
- 고철도 수입고철의 가격이 2배 수준 상승함에 따라 국내 고철의 가격이 68.6% 상승
- 그동안 적체심화에 따라 업체에 무료로 공급하였던 폐PET병도 적체가 해소되고 재활용업체는 물량부족을 호소
- ▶ 특히 1/4분기중에는 IMF체제에 따른 소비위축, 동절기라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재활용품의 자연적인 발생량도 감소하는 추세임.
- 내수위축에 따라 전체 폐기물 발생량이 10-20% 감소
- 청량음료 등의 소비위축으로 포장재 소비량도 감소
- ⇒ 이에 따라 재활용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의 원부자재 조달상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물량공급 확대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

2. “폐자원 집중수거운동” 추진체계

- ▶ “폐자원 집중수거운동”의 개요
 - 각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잠자고 있는 폐자원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자원화를 도모
 - 행사기간 : '98.2.1-2.28(1개월간)
 - 주관 : 지방자치단체(시.군.구), 자원재생공사, 폐자원재활용 수집협의회, 새마을부녀회
 - 후원 : 환경부, 내무부, 통산부, 교육부, KBS, 서울신문사, 철강협회, 제지공업연합회, 유리공업협동조합,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
- ▶ 집중수거 대상품목
 - 물량부족 및 가격이 불안정한 품목을 집중수거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
 - 고철, 캔, 종이, 유리병, 폐PET병, 폐가전, 폐컴퓨터 등
- (가정)
 - 고철 : 주방용품 및 식기류, 캔, 철제가전제품 등
 - 종이 : 잡지 및 서적류, 포장용지, 신문지, 우유팩
 - 기타 : 폐PET병, 폐가전 및 컴퓨터
- (농어촌)
 - 가정수집대상에서 폐농기구류 추가
- (직장·사무실)
 - 불필요한 참고자료 및 문서 서류 등
- (학교)
 - 다 쓴 노트류, 교과서 및 참고서 등

(군부대)

- 고철류, 안보는 잡지 및 서적류 등

▶ 분류배출체계

○ 가정

- “대청소의 날”을 정하여 재활용품을 수집
- 주거단지내 분리수거함에 배출(지자체 수거)
- 또는 새마을부녀회, 환경단체등을 통하여 배출

○ 사무실 및 직장

- 각급 기관에서 “사무실 정리의 날”을 지정하여 수집
- 시·군·구, 자원재생공사 지역사업소, 폐자원 재활용수집협의회 회원사에 수거 요청

○ 농어촌 및 군부대

- 마을(부대) 단위의 집중수거운동 전개
- 수집된 물량을 시·군·구에서 순회차량을 이용하여 수거

○ 각급 학교

- 다 쓴 노트 교과서 및 참고서 수거운동 전개

▶ 수거·운반 체계

○ 시·군·구, 자원재생공사 및 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에서 비상수거체계 유지

- 종이, 철강, 캔 등의 사업자단체는 수거차량 등 소요장비를 지원

○ 새마을부녀회, 민간단체 등에 일정물량이 수거되면 즉가 처리

▶ 보상체계

○ 부녀회, 단체, 학교, 사무실 및 직장단위 등에서 대량을 수거할 경우 shit가로 재활용제품 또는 현금을 보상

- 현물보상시에는 재생화장지, 재생노트, 재생비누 등 재활용품을 보상

○ 환경상품제조협회는 현물보상에 필요한 재활용품 공급을 협조

3. 각 기관·단체별 역할분담

▷ 지방자치단체

○ 특별시, 광역시, 도

- 시·군·구의 “폐자원 집중수거운동”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 실시
- 지역별 기관장회의 등을 개최하여 “폐자원 집중수거운동”의 기본취지 설명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
- 반상회 회보 등에 게재하고, 홍보 이벤트 행사 개최시 기관장이 참석하여 격려

○ 시·군·구

-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최대한 가동하여 배출된 재활용품의 운반 실시(청소행정담당기관에 기동수거체계 유지)
- 수거방법은 지역별로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결정(예시)

(1) 기존의 분리수거함 이용

(2) 동사무소, 공터 등에 수거함 설치(거점 수거)

(3) 수거차량이 마을단위로 순회하여 수거

* 홍보효과 거양을 위하여 가용공간을 활용한 거점수거를 최대한 확대

- 폐자원 수집에 따른 보상기준을 설정

* 환경상품제조협회는 현물보상으로 사용할 재활용품 공급을 협조

- 필요시 자원재생공사, 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회원사, 재활용사업자단체 등은 차량·장비를 적극 지원

▷ 자원재생공사

○ “집중수거기간”중 본부 및 지역사업소에 비상체계 유지

- 각급기관 및 단체 요청시 수집된 폐자원을 즉각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 유지

○ 각급 기관 및 단체 요구시 수거용기와 차량 등 장비를 지원

* 1월중에 집중수거기간중의 비상체계, 자금지원 계획 등 수립

- ▶ 새마을부녀회
- 아파트 단지, 마을 또는 부락단위로 폐자원을 집중수거
-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원재생공사와 협조체계 유지
- ▶ 교육부
- 각급 학교별로 봄철 “대청소의 기간”을 설정하여 학교내의 폐자원을 발굴
- 환경실천교육의 일환으로 가정에 발생된 폐자원을 수집하는 운동 전개
- 도교육청, 시·군·구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시달하고, 시·군·구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추진을 독려
- ▶ 국방부, 통상산업부, 건설교통부, 농림부
- 산하부대, 기관, 단체(철강협회, 제지협회, 플라스틱협회, 주택관리사협회 등)의 적극적 참여 권유
- ▶ 총무처
-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봄철 “사무실 정리의 날”을 지정하여 폐자원을 집중수거토록 유도
- ▶ 재활용 관련 사업자단체
- 관련단체 : 한국철강협회,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, 한국금속재활용협회, 한국제지공업연합회,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, 서울시고지도매업협동조합,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,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,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, 한국PET 용기협의회,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
- 수거된 재활용품 운송을 위한 차량 및 장비 협조
- 수거된 재활용품이 용이하게 재활용체계에서 소화되도록 회원사의 협조체계 유지
- 품목별로 수급동향, 재활용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 실시
- ▶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, 전국가전·가구 재활용협의회
-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·구의 수거·운반 요청시 즉각 수거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사가 비상 수거·운반체계를 유지
- 수거된 재활용품에 대한 깃가구매 등 최대한의 보상 추진
- ▶ 환경단체
- “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” 주관으로 “폐자원 집중수거운동” 관련 캠페인 등 민간 행사 적극 추진
- ▶ 환경부는 1.20일부터 “폐자원 집중수거운동” 상황실을 설치하여 폐자원 수급상황을 점검
-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상황실 설치 또는 자체 청소관련 조직을 활용하여 상황을 유지하고, 자원재생공사, 폐자원수집협의회에는 자체 상황실을 설치

4. 추진일정

- '98.1.20-1.30
 - 각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및 행사준비
 - 환경부, 자원재생공사, 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는 상황실 설치
- '98.2.1-2.28
 - “폐자원 집중수거운동” 전개
- '98.3 : 추진실적 종합 및 평가